

신천지 예수교증거 장막성전(신천지)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교주 이만희(1931~) 본래 과천 장막성전의 추종자. 장막성전의 분열로 1980 년 안양에 신천지교회 설립, 이만희, 홍중호 등이 핵심인물

●주요 문서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상’, ‘계시록 완전해설’, ‘성도와 천국’, ‘신천지 소식’ - 이만희가 쓴 책들

정통교회의 ‘성경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위 ‘비유풀이’로 자신들의 아전인수식 성경해석을 한다. ‘신탄’이라는 교리서는 변찬린이 쓴 통일교의 ‘원리강론’ 과 유사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 불, 선 3 도가 예언했으며 6 천년 종교역사도 이신천지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다른 이단처럼 이만희 자신을 신격화시킨다.

●예수는 누구인가?

자신을 예수와 동일한 맥락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다. 연약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도와 멸망의 소용돌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새 생명의 나라를 개국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 선생이시다.”(《신탄》p44 쪽)

●성령은 누구인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또, 알파와 오메가, 천사, 재림주, 이 시대의 구원자인 동시에 엘리야, 두 증인 중 1 인, 두 감람나무 중 1 인, 사도요한 등으로도 부른다.

●신천지의 거짓증거 내용

(1) 이만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한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말한다. 시작은 씨요, 끝은 열매이다. 시작은 예언이요, 끝은 실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아시아 한반도 땅에 세례요한의 사명자가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말해준다.”(《계시록의 실상》, 이만희 지음, 도서출판사 신천지 펴냄, 36~37 쪽)

(2)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삼위일체교리를 부인)

“성령이신 성부(아브라함)는 성자 예수(이삭)을 낳았고 성령이신 예수(이삭)는 성자 보혜사(야곱)를 낳으셨으니 이것이 삼위일체다”(계시록의 진상 2,37 쪽)라는 괴상한 논리를 주장한다.

(3) 이만희는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듯 이만희의 구원론도 마찬가지다. 한 목자인 교주 이만희를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

(4) 신천지는 144,000 을 실수(實數)로 본다.

신천지인들은 계시록 7 장에 인치심을 받은 144,000 명을 문자 그대로 144,000 명만 구원 받는다고 보고, 잘못된 환상과 속임수로 신도를 포섭한다. 이미 죽은 ‘순교자의 영, 144,000’이 ‘살아있는 육체, 144,000’에 덧입히면 영과 육이 영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신접사상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한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행위와 사상을 가장 싫어하신다.

(5) 종말론

이만희는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를 한국 땅으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적 사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의 장소를 장막성전이 시작되었던 한국의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라고 하면서 (계시록의 진상 2 권, 49-50, 469 쪽: 계시록 완전해설 227 쪽) ‘신천지교예수증거장막성전’에서 종말의 사건이 완성된다고 암시하고 있다.(계시록의 진상 2 권 300~306 쪽)

(6) 성경론

이만희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여 육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다.” (《성도와 천국》, 이만희 지음, 도서출판 신천지 펴냄, 26 쪽, 1995 년)문제는 이 비유풀이식 성경공부에 성경에 깊이가 약한 기존의 성도들이 그럴듯한 해석에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7) 계시론

이만희는 유일하게 직통계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나 책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는다.

(8) 부활론

-예수님의 육의 부활 부인 : 이만희는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 그 몸은 '영육 부활체'가 아니라 '영체'라는 것이다.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한다. 계시록 12 장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남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신천지 포교전략 가운데는 기성교회에 위장신자로 등록해 대상을 물색한 후 빼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타발 전도'라고 한다. 전도자들을 '추수꾼'이라 하며, 대체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교회가 목표가 되고 있다.

홍종효의 증거장막성전(홍제동) - 분파

무료성경신학원(각 지역별 산재)등으로 활동 중

캠퍼스, 학원 포교에 주력(동아리 활동 등으로 위장). 문화센터 개설 기성교회 형식의 부흥회, 축복세미나 등으로 침투

●문제점

조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기성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미명하에 접근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 성서지식, 신학바탕이 없으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움, 사령장과 계급뱃지수여, 피의 언약식 등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찰스 타즈 러셀(1852~1916)이 시초이며, 이후에 조셉 루더포드가 창시자로 1870 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작되었다. 본부는 뉴욕의 부루클린에 있다. 한국 국내 본부는 경기도 안성에 있다.

●주요 문서

현재 발간되는 파수대와 성경을 변질시켜 편리대로 자체 발행한 ‘신세계 번역성경’을 주된 경전으로 사용한다.

‘파수대’(Watch Tower)와 ‘깨어라!’(Awake!)등 발행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호와라고 불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는 부정한다.
예수는 여호와가 만든 첫 번째 창조물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상에서 살기 이전에 그는 우두머리 천사인 미카엘이었다. 여호와는 그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였다. 지상에서 그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 말뚝 위에서(십자가 아님) 죽은 후, 그는 영적으로 부활했으나 그의 육체는 소멸되었고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는 1914 년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하였다. 이제 곧 그와 천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모든 이들을 멸할 것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비인격적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나온 보이지 않는 능력(힘)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추종자들은 집집마다 전도를 통해 지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에서의 구원은 144,000 명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국한되며 이 숫자에 거의 이르렀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144,000 명이 천국에서 영으로 살고 있다. “의로운 자”에서 제외된 “믿는 사람”이 지상에 남아 있어서 1,000 년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당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파수대 성서와 소책자 전도회로 잘 알려져 있다. 일요일에 “왕국회관”에서 만남을 가지며 신도들은 지집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전도한다. 공휴일과 생일은 지키지 않는다.

투표와 국기에 경례하는 것, 군대에 가는 것, 수혈을 거부한다.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문제점

- ①병역의무 기피 및 집총거부
- ②수혈거부 (수혈 거부 카드를 항시 지니고 다님)
- ③가정윤리 파괴
- ④직업포기(서적상, 행상 등 추천)
- ⑤교육 포기(세상 지식 무용론)
- ⑥결혼제한(여호와증인끼리만 결혼 가능)
- ⑦의식화 교육(비밀결사 조직)

통일교(문선명)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문선명(1920~)이 창시자이고 1954 년 서울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시작하였다. 현재 본부는 뉴욕에 있다.

●주요 문서

문선명의 ‘성취된 약속’에 초점을 맞춘 ‘신성한 원리’가 있다.

요약된 원리 4 단계, 그리고 성서가 있다.(성서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교과서로 이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주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교통하시기에 그를 행복하게 할 사람(문선명)이 필요하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며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연합하게 하며 완벽한 신부를 찾아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였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온 문선명은 이 사명을 잘 이행하여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예수님의 사명을 끝낼 것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여성적인 영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일하며 온 세계를 문선명에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진정한 부모(문선명과 그의 부인)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때 죄가 사해지며 그 결과로 완전해 진다. 그들은 문선명과 그의 부인에 의해 21 가지의 성분이 섞인 ‘특별히 거룩한 포도주’를 마시므로 결혼을 하게 된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된다. 거기엔 부활이 없다. 신자들은 증인된 사람들에 의해 문선명에게 나아가게 된다. 모든 이들, 심지어 사탄까지 구원을 받는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합동결혼식(최근에는 30,000 쌍)은 서로 다른 인종 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문선명에 의해 중매되고 실행되어 진다. 신도들은 예수가 문선명에게 경배한다는 것과 문선명이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는다. 죽은 이들과 영적 접촉을 한다.

●문제점

피갈음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혼음, 참부모(문선명, 한학자)우상화, 합동결혼식의 강제성, 인위적 조장 등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경제, 문화, 교육, 언론 활동 뿐 아니라 최근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교주 정명석(1945~)은 통일교에서 활동하다 1980 년 애천교회를 시작, 1983 년 예수교 대한 감리회에서 돈을 주고 목사안수 받음.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JMS)로 활동.

●주요 문서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복사 - 30 개론 작성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계시의 영감을 받은 교주 정명석만이 인봉된 말씀을 풀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짓.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와 어머니 성령의 관계를 통해 태어남. 또한 교주 정명석이 기도하여 김일성도 죽었고 태풍도 비켜 갔다. 즉, 하나님은 정명석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신으로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육체는 죽고 영만으로 부활하였고 사역도 미완성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즉,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재림한 것이며 자신이 구세주인 JMS(Jesus Christ Mission Savior, Jesus Morning Star)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선악과 비유를 하와와 천사(뱀)와의 성행위라고 통일교와 똑같이 주장. 오직 예수의 영이 재림한 자신을 통해서만 죄악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함.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재림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육신 재림은 거짓이며, 부활도 육도 아닌 영혼만이 부활한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기독교와 정명석과의 전쟁이며, 구세주인 정명석이 반드시 이긴다고 주장. 기존 교회는 모두 거짓이며, 정명석을 안 믿으면 이단이 되고 죄인이 된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영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 이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천국 - 지상계 : 천영계, 음부

천상영계 : 낙원, 무저갱, 천국, 지옥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신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교주에게 맹종하게 함.

자신은 메시아이므로 인간 몸의 모든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며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여성은 메시아라는 생각으로 반항할 엄두를 못 냄.

●문제점

문제의 심각성 - 신도의 80%가 대학생, 청소년임

전도방식 : 재즈, 스포츠 등 문화 동아리 개설->오랜 시간에 걸쳐 가족처럼 잘해 주며 환심을 삼 ->

서서히 핵심 교리 30 개론 교육 -> JMS 신도로 가입

정명석 비위사실은 수 차례 방송되었고, 현재 자칭 메시아 정명석은 성폭행,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수배 중, 해외 도피 중임

안티 JMS 홈페이지 : <http://www.amtijms.or.kr>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장길자)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안상홍(1918~1985)이 1964 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창립. 현재 하나님의 신부라 자칭하는 장길자(여)가 교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명.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림. 본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다.

●주요 문서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자인 안상홍을 증거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이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안상홍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교주 안상홍은 죽었으나 그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다윗의 위(位)로 왔는데 다윗의 재위 기간은 40 년이었고 예수님은 공생애 3 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37 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홍은 30 세에 안식교에서 침례를 받고 67 세에 죽었으니 재림 예수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안상홍 자신이 재림 예수 격으로 이 땅에 왔으며,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 성자 안상홍 하나님을 주장한다. 지금이 성령시대이므로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앎으로 인침을 받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함.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144,000)고 주장한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는 우상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함.
안상홍의 여인(장길자)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칭하며 우상화, 멜기세덱 출판사 운영

●문제점

안상홍에 대한 잘못된 우상화, 신격화(안상홍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으로 섬김), 정통교회 부인, 잘못된 종말론 등으로 사회 혼란 야기, 집단 시위, 파격행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자원봉사 등의 명목으로 대학가에 침투하여 학생들을 포섭.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조셉 스미스 주니어(1805~1844)가 창시자이며 1830 년 뉴욕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 본부는 유타주 솔트 레이크시에 있다. 미국 최초의 이단. 가장 강력한 이단 세력.

●주요 문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성서(킹제임스역 이나 스미스의 사역성서만 인정)와 나란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때로는 성경보다 우위에 둠.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되었다. 그는 육체와 몸을 가졌고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이다.(하늘의 어머니)

삼위일체는 부정하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분리된 신들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신이다.(엘로힘) 그는 천국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어린 아이로 창조되었고, 모든 인류와 영적 존재들의 ‘만형’이 되었다. 그의 몸은 엘로힘과 마리아의 성적인 결합으로부터 생겨났다. 예수는 결혼하였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죄를 완전히 구속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들의 부활을 예비한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일종의 전기나 영향력과 같은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이기도 하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은혜를 따라 부활을 하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신성을 얻게 하는 것)여기에는 교회의 지도자와 몰몬의 세례, 십일조, 신앙서약식, 결혼식, 그리고 은밀한 몰몬교의 종교의식 등에 헌신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몰몬교에 속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결국 모든 이들은 세 개의 하늘의 왕국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 어떤 이들은 신성에 도달하며, 배교자와 살인자들은 ‘밖의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술, 담배, 커피나 차를 금한다. 2 년간의 선교사 서약을 권면한다. 집집마다 방문전도를 한다. 은밀한 예배의식 등은 오직 높은 지위의 멤버만이 참여할 수 있다. 광대한 사회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유색인종은 몰몬교의 성직자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제점

몰몬교의 교리는 그야말로 해괴하기 그지없다. 일부다처제가 말해주는 여성인권문제, 유색인종(흑인)에 대한 차별은 비난의 대상이며, 은밀한 종교예식은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안식교)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윌리엄밀러의 사상을 이어받은 엘렌 G.화이트로부터 시작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1904 년 하와이로 이민을 가던 한국인들이 일본 체류중에 안식교인이 되어 돌아와서 포교를 시작함으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주요 문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으나 문자적인 오류는 있다.

엘렌 G.화이트의 계시와 해석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사무엘, 예레미야가 선지자였듯이 세레 요한처럼 우리는 화이트 부인이 오늘날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선지(先知)였음을 믿는다.” ‘안식교 성경주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의 원리’, ‘교리문답집’ 등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각각의 세 품격(person)을 가지셨고 그 분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만이 영생하신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누구인가?

성육화된 그리스도는 죄 범한 인성 즉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다. 또한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구약의 교리만 지키려는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 생기는 오류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뿐 아니라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소위 ‘자력 구원설’의 색채가 짙다. 누적된 죄를 씻기 위한 세족식과 성찬을 행한다. 죄씻음(정화)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2300 주야 취조심판(조사심판), 안식일 계명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한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엘렌 G.화이트의 계시에 따라 영혼멸절설, 영혼지옥 부재설, 2300 주야 조사심판등을 주장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토요일 안식일 준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주일예배는 거짓예배라고 주장.

안식교만이 '남는 자손'으로서 참 교회이다.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져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영혼멸절설)

●문제점

안식교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G.화이트의 계시론, 영혼 멸절설, 영원지옥 부재설, 조사심판 및 2300 주야문제 등의 비성서적인 교리를 주장한다.

시조사, 위생병원, 삼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엘리아 복음선교원(박명호)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교주 박명호(1943~)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안식교 교인이었다. 1980 년 속했던 안식교에서 빠져나와 첫 집회를 갖고 1984 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본부-강원도 원성군

●주요 문서

제일, 제이 제삼성경(세 가지 성경)으로 나누어 조작. 선지자 엘리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주장. 육식을 엄금. 조미료 사용금지. 하나님을 ‘친아빠’로 부르는 등 잘못된 성경해석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외모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친아빠라 호칭하여 친밀성을 강조. 삼위일체 부정-성부, 성자, 성령의 각 몸을 주장하는 삼신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치 않음.
다만 아담형, 하와누이, 만형 예수님 등으로 호칭

●성령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빠, 예수님은 형, 성령은 엄마 등의 호칭
이와 같은 지나친 비유는 결국 온전한 신앙고백을 이루지 못한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를 몰라도 제일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신선이 되어 승천한다는 해괴한 주장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영생대로, 천국정문열쇠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印)치심의 기별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박명호 자신이다. 鳴(울 명) 呼(부를 호)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남자신도는 “왕자님”, 여자신도는 “공주님”이라고 호칭한다.

이들은 봉고차를 타고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위장 이름을 내세워 찬양을 해주고 카세트테이프와 박명호의 책자를 판매하며 때로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금

●문제점

엘리아 복음선교원에 미혹되면

- ①가정파괴(별거, 이혼조장)
- ②학업 중단, 포기
- ③기성교회 거부 등 심각한 무제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기도원(김계화)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김계화(1947~)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무당의 신 내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영적체험(접신). 1981 년 서울 세검정에서 시작하여 포천을 비롯하여 모두 8 개(미국 LA 포함)의 할렐루야 기도원 운영.

●주요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환상과 계시 등 영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말씀 중심에서 이탈하고 있다. 기도원의 '생수터'에서 나오는 물 자체에 '말씀'이 들어있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여 '능력의 생수'라고도 한다. 박태선에게 있던 능력이 자신에게 옮겨 왔다고 주장. 김계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김계화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 병을 낫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병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며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이 육화되는 사례'라고 까지 한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환청, 환상으로 받은 물건들은 무당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수술은 그의 손에서 불이 나가 환자의 환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고름, 암덩어리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성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령이 맞는 듯)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할렐루야 기도원만이 영생하는 곳이라고 가르친다. 생수교리를 주장하면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에서 나는 샘물을 마셔야 회개의 영이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함.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김계화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영생하는 곳이라고 가르치며 그 곳이 아니면 지옥이고, 죽는 것은 저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서울 남산의 도깨비 무당과 의형제를 맺고 이를 모방하여 포천에 기도굴을 만들고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기도굴을 장식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며 헌금을 가용.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성령치료와 생수치료를 행한다. 송우리 기도원에서 소위 여리고 작전 모임이라고 하여 기도원을 돌고 헌금을 방치면 응답을 받는다고 신도들을 현혹하여 금품을 받는다.

●문제점

소위 “성령수술”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 손톱으로 상처를 내고 상처부위를 통해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병균이 전염되어 도리어 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수의 효과를 지나치게 극대화함으로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부부별거를 시킨다. 매년 정초가 되면 백 원짜리 동전에 ‘하나님이 주신 세뱃돈’이란 문구를 붙여 헌금을 받고 나누어 주기도 한다. 소위 성령수술로 병이 나은 사람은 김계화 원장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여 죽고 만다고 협박한다.

대순진리회(조철제·박한경)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대순진리회는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의 변질된 한 분파이다. 그 후 조철제의 영향을 받은 박한경(1917~1998) 자신이 옥황상제와 인간상제로 등극하여 1972 년 설립. 조철제와 박한경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단체

●교리

신앙양태	1974 년 발행한 대순전경을 바탕으로 옥황상제와 인간상제, 도전 등으로 불리는 조철제, 박한경 등을 숭배하도록 유도한다. 마치 진리(도)를 전하는 듯 하나, 결국 치성(헌금)이 주된 목적이며 박한경에 대한 신격화와 교세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조직	방면이라는 자체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조직, 점조직형태 상하구별이 뚜렷한 철저한 수직구조를 보이며, 점조직은 대순진리회의 비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해 용이하여 가정파괴,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시에도 대순진리회 중앙에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

●활동

표교에 충력을 기울인다. 특히 젊은 신도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접근한다. 갖가지 술책과 말로 현혹시킨 후 대순진리회에 안 나오거나 돈을 바치지 않으면 개인과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협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분당제생병원, 동두천제생병원, 대진대학교, 대진고등학교 등이 대표적 기관이다.

●문제점

대순진리회를 통한 사회문제는 이루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치성 등을 통한 무리한 헌금 갈취, 부녀자 집단 갈취, 가정파탄, 그리고 최근에는 갖가지 기괴한 방법을 통한 교세확장을 꾀하던 중 살인암매장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대순진리회 내부의 세력 다툼이 심각하여 폭력, 살인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1990년대 이후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단체의 급증. 대표적으로 이장림의 “다미선교회”가 있다.

●교리

시한부 종말론의 허구성

- ①잘못된 역사관 - 시대구분의 잘못(성경역사 해석의 오류)
- ②적그리스도관 - EC 통합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았다.
- ③7년대환란 - 1999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므로 7년 환란의 시작은 1992년이라 해석(자의적 성경해석)
- ④999 숫자 - 흑세무민하는 이단의 상투적 수법
- ⑤집단적 이기주의 -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고 집단적이고 독립된 생활 고수

●활동

잘못된 주장

- ①어느 날 몇 시까지는 몰라도 그 해(연도)는 안다.
- ②노력하고 연구하면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있다.
- ③성령의 계시로 안다.
- ④계산을 하면 알 수 있다.

●문제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

재림시기를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 열심히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함(눅 21:34-36)

그래서 약속하신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엡 5:15-21)

현실에 더욱 충실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여 충성, 봉사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교 승리재단(조희성)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명칭: 영생교하나님의 성회(국조승봉국민총화회)

‘밀실파’로 지칭되는 이 영생교는 교주 조희성(1931~)이 박태선의 전도관 에서 이탈하여 1980 년 초에 만든 이단 집단

●교리

박태선의 감람나무 등지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열매 맞는 일만이 남았는데 그 사명을 교주 조희성 자신이 맡았다고 주장

교리서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

- ①사람은 영과 육으로 쪼갤 수 없다. 사람의 영 자체가 몸이다.
- ②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람의 실존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
- ③창조주 하나님과 아담, 하와, 하늘의 3 수의 영이 영원전부터 공존하고 있었다.
- ④예수는 만고의 사기꾼이다.
- ⑤말세에 구세주는 한국에서 난다. 단군은 이스라엘 단 지파의 자손이다.

●활동

승리재단이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 교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영생교의 폐해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됐으며 최근 살인 생매장 사건 등으로 세간에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점

조희성은 영생의 비결을 설명하면서 사망의 신은 ‘나(자아)’라는 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짓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희한하기까지 한 궤변투성이다.

영생교의 주장은 그 모순점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비성서적이며, 불건전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특히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아가동산(김기순)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교주 김기순(여, 1943~)은 본래 소위 삭발교로 불렸던 주현교회(교주 이교부)의 열렬한 신자였다. 1980 년 이교부가 감옥에 들어간 때를 이용하여 주현교회 신자들을 포섭하여 경기도 이천에 아가동산을 창설하였다.

●교리

김기순을 ‘아가야’(죄가 없는 자)로 칭호 영생불멸의 행복한 삶을 주장 ‘아가야(김기순)는 나의 사랑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는 근본이 쌍것이고 천하다. 노예 신분이다. 자신이 곧 재림주이다. 더구나 김기순 자신은 “신”의 영을 받은 자이므로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까지 하였다.

●활동

아가동산에서 착취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신나라레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

아가동산(농장)은 '아가야'라는 김기순을 호칭한 것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무임금 농장이다. “누구든지 이곳을 탈출하면 신이 천사를 시켜 죽인다.”고 협박. 결국 노동력 착취와 협박에 못이긴 신도들이 아가동산을 탈출하여 비리가 폭로되고 살인, 암매장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구원파(권신찬·유병언·이요한·박옥수)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설립자 권신찬(1923~)이 미국선교사 딕 욕(Dick York)의 영향을 받아 사위 유병언등과 함께 1961 년 대구에서 시작, 현재 유병언을 대표로 하는 권신찬계열(기독교복음침례회), 이요한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계열(대한예수교복음침례회)로 분파되었다.

●주요 문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구원론을 합리화시킴. 십계명을 부정하며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을 부정, 종교와 복음은 분리되었으며 종교(율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을 다 믿지 말라. 마귀, 사단, 세상말도 있다. 성경이라고 다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영이다.

●예수는 누구인가?

‘깨달음’ 통한 구원만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
권신찬, 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자신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성경, 예수, 메시아 등으로 부각시키기도 함.

●성령은 누구인가?

유병언 등을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라고 자칭하여 물의를 일으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 구원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주관적인 은총이라는 사상이 거의 없다. 구원에 관한 10 단계 질문의 완성을 통해 구원 받는다. 결국 성화가 배제된 중생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억지 해석함.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세계정부의 실현가능성, 적그리스도 666 의 출현 등을 강조. 마지막 때 자신들만이 들림을 받게 된다고 주장.(사회불안 조장)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월간 ‘기쁜소식’, ‘새길’, ‘소식’, ‘생명의 빛’이 이들 단체 등을 통해 발행되고 있다. 최근 박옥수의 ‘성경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미혹케 함. 유병언이 대표로 있는 (주)세모를 통해 활발한 기업 활동 전개

●문제점

- ①회개와 믿음(신뢰)이 빠진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 ②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 ③스스로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서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
- ④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형식,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축도 등을 종교와 율법이라고 규정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다락방 운동(류광수)

●창시자 및 핵심인물 지역 및 연도

류광수- 경남 거제 출신.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단성(귀신론)과 도덕성(뽕소니)부 재로 출교 당함(1991). 1995 년 고신 측에서도 목사 면직됨. 1988 년부터 다락방 훈련원을 창립, 다락방운동을 전파

●주요 문서

성경의 핵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 구원론만을 주로 강조함.

●하나님은 누구인가?

삼위일체와 더불어 성도들도 하나되는 소위 사위일체적 신론을 가짐. 이는 위트니스 리의 삼위일체 사상과 유사.

모든 회복은 사단을 멸할 때 인간에게 찾아온다며 지나치게 귀신론을 주장함.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사단진멸이라고 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사단에게 갚는 것이라고 주장. (수위 사단배상설)

●성령은 누구인가?

신론과 기독교론에 비해 크게 강조하는 것이 없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위트니스 리의 영접사상과 비슷,(영접해야만 기독교인이 되며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이다.) 궁극적 구원이 아닌 영혼 구원만을 강조한다. 믿고 나서도 예수를 다시 영접해야 한다는 예수 재영접설을 주장.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육체는 멸망하고 영혼만 구원된다는 반구원설을 주장.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기독교회를 전도가 없는 종교, 혹은 사단의 교회로 간주함. 그리고 자신의 다락방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무시한다.

●기타 종교의식 및 활동

귀신론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현재적인 성장과 성화보다 오직 전도에만 치우침. 다락방 훈련원을 통하여 전도훈련운영, 피라미드식 구조를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 도서출판 예수생명을 통하여 전도훈련교제 발간. 지방 각지에 전도학교 운영. 해외에도 조직이 있다.

●문제점

다락방 훈련원을 통해 신실한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 보다는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남.

만민중앙교회(이재록)

사이트 www.manmin.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1 번지

조 직

- 1) 조직 : 기성교회와 동일
- 2) 교당(교회)수: 구로동 본 교회를 비롯한 43 개의 지교회를 두고 있다.
- 3) 교역자 및 교인 수 : 교역자 80 여 명과 신도 5 만여 명.

연혁과 변천

1) 시작과 과정

이재록 목사는 결혼 이후 7 년 동안 갖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현신애 권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병이 나은 후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1982 년 신대방동 지하에 교회를 개척(장년 9 명, 어린이 6 명, 외부교인 5 명)하고, 1983 년 2 월 24 일 예수교대한성결신학교를 졸업하여 1986 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2) 변천과정

1982 년 7 월 25 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한 작은 건물 2 층을 임차하여 장년 9 명, 어린이 4 명 등이 모여 개척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10 월 10 일 창립 예배를 드렸다. 성경 66 권의 말씀을 친히 한정에 전도사의 대언을 통해서 이 목사에게 계시하여 해석해 주고 연탄가스에 죽게된 사람을 살리는 등 신유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고 한다. 1990 년 10 월 이단성의 문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제명처분 당한 후 예수교대한성결교연합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였다.

주요교리와 활동상황

1) 주요교리와 주장

신비주의에 입각하여 계시를 받는 여 전도사를 앞세워 대언을 하게하고 자신은 이를 기정 사실화하는 목회로 일찍이 기성교회의 논란이 되었고 직통계시와 자신을 신격화하는 등 기성교회의 성경해석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신이 처음과 끝이며 심판의 권세자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 ②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아브라함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
- ③ 자신은 원죄나 자범죄가 없어 어떠한 죄를 저도 죄가 안된다.
- ④ 말씀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말씀을 다 이루었으니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
- ⑤ 천국은 일천층, 이천층, 삼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금의 정성이나 액수에따라 층별 천국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처소가 결정 된다고 주장한다.

2) 활동상황

선교단체로 MMTC(Manmin World Missionary Training Center)가 있다. 만민 중앙 성결 교회의 선교 양성 기관으로, 1997 년 10 월 5 일에 설립되었다. 문화·예술단체로 닛시 오케스트라를 1992 년 3 월 1 일 창단하였으며 자체 신학원 운영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격주간의 <만민중앙소식>과 주간지 <민족복음화신문>을 발행한다. 또 만민 TV 를 통해 이 목사의 설교가 행해지며 그외에도 전국기독교 방송과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뉴욕 AM930 코리아, 필라델피아 기독교방송, L·A 미주기독교방송, 뉴질랜드 한국말 기독교방송, 호주한국방송, 러시아사할린한인방송, 캐나다밴쿠버 기독교방송, 일본 FM-YY 방송 등에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 교회부설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부인인 이복임 전도사가 운영하는 만민기도원은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안수하여 주고 있다.

기타사항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성결교회 총회 측으로부터 이단으로 출교처분 당하고,

1998 년 8 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하여 교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만민중앙교회와 만민기도원을 중심으로 이재록 목사는 직통계시를 앞세워 자신이 신유의 은사, 물질의 축복 등의 권능이 있다고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왔다. 1998 년 12 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1999 년 5 월 11 일 이재록 목사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이탈신도들의주장이 늘어나고 도박, 음주, 여교역자와의 성추문 등으로 MBC 시사고발프로그램인 (PD 수첩)에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실체가 방영되자 교인들이 방송국의 주 조종실을 점거하는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예수중심교회(이초석)

사이트 www.hjc.or.kr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 6 동 KBS 88 체육관 1093-76 제 1 체육관 VIP 실

조 직

* 공식명칭 : 예수중심교회/ 한국예루살렘교회

- 1)조직: 기성교회와 동일
- 2)교당(교회)수: 전국에 기도원을 포함한 50 여 개의 지교회가 있다
- 3)교직자 및 교인수 : 교역자 60 여 명과 전국적으로 3,000 여 명의 신도가 있다.

연혁과 변천

1) 시작과 과정

이초석 목사의 본명은 이춘석으로 1951 년 11 월 21 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69 년 선린상고를 졸업하고 1984 년 예장 합동정통신학교(현 기독교신학교)를 중퇴하고 1984 년 예장 성합측 바울신학교 졸업 후 그해 9 월에 경기도 광명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였다.

2) 변천과정

1984 년 12 월 교단인 예장 성합측에서 이초석 목사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추종한다고 하여 그를 제명한 바 있으며 이 목사는 교회를 인천시 남구 송의동에 있는 옛 전도관 자리로 이전하고 한국 예루살렘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1988 년 5 월 8 일부터 6 월 18 일까지 전국에 다녀왔다는 미국인 펄시 콜레 박사의 “천국성회 간증집회”를 인천 마가 다락방에 유치하면서 부터 세간에 주목받기 시작한다. 특히 단상에 오르다 쓰러진 펄시콜레를 안수 기도하여 살려냄으로써 죽은 자도 살려 낸다는 식의 능력을 과시했고 이후부터 이초석 목사는 명성을 십분활용하여 급성장하였다.

주요교리와 활동상황

1) 주요교리와 주장

이초석 목사의 개인 신앙 진술서를 살펴보면 기성교회와는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지나친 신비주의, 둘째, 계시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을 중시, 셋째,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다.

이초석 목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귀신에 관하여 - 사탄의 조직은 사탄 혹은 마귀, 타락한 천사들, 미혹의 영들, 그리고 귀신들이며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제명대로 살지 못한 원혼이다.
- ② 성경관 - 성경을 인간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지침서로 이용해 가르치고 있다.
- ③ 신론 - 예수가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공식 명칭이다.
- ④ 창조론 - 음부는 이 세상이다.
- ⑤ 인간론 -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 하나만 지었으며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은 분리되어 간다.
- ⑥ 성자관 - 예수는 보통인간과는 달리 영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 ⑦ 구원관 - 구원이란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며, 바로 이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2) 활동상황

간행물로 주간신문 Untold Story 를 발간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예루살렘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교 및 포교단체로 땅끝예수전도단을 두고 있으며 이 단체는 예루살렘 교단 산하의 선교총본부로서 국내 및 해외선교의 전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에 교회 설립, 선교비 지급, 국내 및 해외 전도집회 주관, 신문 및 책자 제작, 배포, 비디오 및 오디오 테잎 제작, 발송,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제작, 송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작된 테잎을 신도들에게 배포한다.

주일예배와 집회를 강서구 등촌동 88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며 집회시에는 전국의 신도들이 모인다.

기타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77 차 총회에서는 이초석 목사가 김기동 목사와 같은 귀신론과 비성경적인 축사를 통해 안수를 행한다고 하여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병어리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를 안수를 통하여 고칠 수 있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어 이초석 목사의 귀신 쫓는 안수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난 2000 년 6 월 7 일에는 이초석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증상이 있는 김경숙 노파(당시 72 세)가 집회장인 88 체육관 창고에서 온몸에 멍이든 피살체로 발견되어 논란이되었으나 이렇다할 원인을 찾지못하고 사건이 종결 되었다.

1980 년 대 말부터 붐을 이루기 시작한 체육관집회는 한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며 세 과시와 함께 독특한 홍보효과를 이루어냈으나 요즈음은 그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용상의 문제나 맹신적인 이유로 현대적인 의료기술에 의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초석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회복)교회(윗트니스 리, 이회득)

설립자 위치만 니(1998 년 사망)

사이트 www.recovery.or.kr

소재지 서울 제 1 집회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 동 1334 신동아 상가 5 층

조 직

1) 조직: 지방교회의 행정은 각 지방별로 단위로 독립적이며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른다. 사도직과 장로직, 그리고 집사직이 있으나 직급과 감투가 아님을 강조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며 대사와 같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를 뜻한다. 사도는 한 특정 지방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교육하며 인도한다. 사도외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가 전하며 선포할 때 그것을 먼저 받아서 깨닫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며 복음을 믿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복음전하는 자’, 사도가 전한 진리를 듣고 깨달아 교회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심방하고 생명공급을 전하는 ‘목자’가 있으며 목자는 무보수이다.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등은 은사이며 교회안의 직분으로는 장로(감독)와 집사가 있으며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교회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감독하고 치리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임명하며 초신자나 여자는 될 수 없다. 집사는 교회의 각 부문의 일을 맡아 봉사한다. 장로는 교회마다 1 명을 두며 집사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교당(교회)수 : 각 지역별로 집회소라 불리는 회당이 전국에 60 여 개 있다.

3) 교직자 및 교인 수 : 대만, 미국, 필리핀을 비롯한 전세계에 8 만여 명의 신도가 있으며 국내에는 2,000 여명의 신도가 있다.

연혁과 변천과정

1) 시작과 과정

지방교회의 창시자인 위치만 니는 1903 년 11 월 4 일 중국 동남부 복건성에 있는 푸조우에서 9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위치만 니라는 이름은 그가 기독교인이 된 뒤에 갖게 된 이름이고 그의 중국식 본 이름은 ‘니토썅’인데 그 뜻은 ‘징치는 자’라는 뜻이다. 위치만 니는 18 세 때인 1920 년 기독교를 믿게되었고 가두전도에 헌신하는 한편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빌려온 책을 탐독하며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갔다.

1923 년 위치만 니는 ‘작은 무리 운동(The Little Flock Movement)’이라는 경건주의신앙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6 년만에 7 만 명을 전도하였고 700 개가 넘는 지역 모임을 만들어 위치만 니를 훌륭한 복음주의 운동가로 평가받게 하였다.

위치만 니는 1952 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1972 년 20 년을 복역, 출소 후 같은 해 사망하였다.

2) 변천과정

위치만 니에게는 두 명의 절친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한사람은 현재의 지방교회를 이끌어온 윗트니스 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스티븐 강이었다. 상해와 필리핀을 담당하는 대표사역자인 윗트니스 리는 1950 년 대 교인들을 이끌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후 1962 년 미국 LA 에 최초의 지방교회를 설립하였다.

한국에 지방교회가 전래된 것은 워치만 니의 직계제자라 자처하는 왕중생(한국명 -권익원)씨에 의해 1966 년 시작되었다. 한국인으로 중국군의 연대장까지 진급했던 왕 씨는 ‘회복의 복음’을 조국에 전파할 각오로 귀국하여 열정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왕 씨의 성향은 외국의 지방교회와 교류를 어렵게 하였는데 왕 씨의 사망 후 자연스럽게 윌트니스 리의 지방교회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지방교회는 윌트니스 리의 영향을 받게되었다.

윌트니스 리의 사상적 변화는 1950 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특히 1950 년대 이후에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이라는 그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교리와 활동상황

1) 주요교리와 주장

지방교회의 성경해석은 기성교회와 큰 차이는 없으나 삼위일체론과 인간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위일체론은 기성교회가 정죄한 양태론적 표현이다.
- ②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되었다가 성령이 되었다. 성령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신인합일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신성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인성이 없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
- ④ ‘사단의 화신인 죄를 멸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고 함으로 도덕 폐기론적 사상을 주장한다.
- 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외형과 내형이라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다고 해석한다.

2) 활동상황

예배는 주일 대 예배만 있고 이때 전 신도가 참석한다. 좌석 배치는 신도들이 원 형이나 ㄷ 자 형태로 앉고 설교자는 그 앞에서 설교를 행한다.

통성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기성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대신 지방교회에서 제작한 찬송가를 사용한다. 설교자의 설교 후 신도들 중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간증을 한다. 때로는 여러 명이 간증을 할 때도 있다.

대 예배 외 여러 형태의 집회가 행해지고 있다. 여자들은 천주교 미사 때와 같이 머리에 하얀 미사포를 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에 서울 ‘진리사역원’을 두고 성경교육을 실시하며 분당에 있는 출판사 한국 복음 서원을 통해 워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의 저서를 번역 출간하고 있다.

지방교회는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의 교회, 심지어 “천주교는 마귀적이고 개신교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성교회에 배타적이고 비판적이다. 이 때문에 기성교회와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타사항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75 회기 사이버신앙운동 및 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행업)는 경북노회가 제출한 ‘지방교회의 정체에 대한 질의’에 따라 연구결과 ‘이단’으로 밝혀졌다고 1991 년 제 76 회 총회에 보고했고 이 보고는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제 77 회 총회에 ‘추가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말씀보존학회(성경침례교회) (이송오)

소재지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9-4 금강프라자 7층

조 직

- 1) 조직
- 2) 교당(교회)수 : 전국 10여 개 해외 캐나다 토론토, 파이오니아 2곳
- 3) 교직자 및 교인수 : 300여 명

연혁과 변천

1) 시작과 과정

말씀보존학회는 지난 1992년 4월에 창립되었다..

이송오 목사는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중퇴, 대한항공 조종사,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경기도 송탄의 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말씀 보존학회를 설립,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장, 성경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이송오 목사는 말씀보존학회와 함께 성경침례교회도 동시에 세웠는데 말씀보존학회의 존재이유를, “교회들은 많은데 교회는 없다. 찬양과 경배는 강조하면서 정작 복음은 없다. 복음 비슷한 것은 있는데 양육이 없다. 50년된 성도도 늙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있다. 그 와중에 이색종파들이 표면에 나와 횡행하므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특징은 피터 렉크만이라는 인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피터 렉크만은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약칭 PBI)의 학장이자 성경침례교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1965년 9월에 미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시에 성경신학원을 설립했다.

2) 변천과정

이송오 목사는 1992년 교회개혁 후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정경이며 기성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들은 모두 사단이 변개한 것”이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주장으로 기성교회에 많은 파문과 함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여하간 말씀보존학회의 존재를 알리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기성교회로부터 끊임없는 이단시비와 함께 현재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주요교리와 활동상황

1) 주요교리와 주장

① 말씀보존학회는 영어성경인 NIB, NASB, RSB, NEB, GNB, JB, LB, NSRV 등 10여종의 것들도 한글 개역성경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특히 NIV 성경은 ‘배교의 결정판’이라고 까지 혹평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홍보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체 출판물인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정경이라고 주장한다.

이송오 목사는 신약성서를 4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데 복음서=복음서신, 바울서신=바울서신, 일반서신(공동서신, 보통서신)은 천주교서신으로, 계시록은 계시록으로 번역해 놓았다.

이송오 목사의 주장은 ‘성경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한다.

② 렉크만은 그의 조직신학에서 천사는 모두가 남성들이고 천국의 모든 천사들은 33 세 반으로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본받아 33 세 반 이라고 하며 여자도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 33 세 반의 남성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③ 기성교회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으로 거기서 나온 믿음은 썩은 것이고 생명을 주는 요소는 없는 것이고 결국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은 피에 독소를 넣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2) 활동상황

말씀보존학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월간지를 발간 비롯한 활발한 출판활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산하에 펜시콜라신학원을 두고 있다.

기타사항

지난 1999 년 10 월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월간 현대종교, 월간 교회와 신앙을 명예 훼손혐의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사회일탈적인 면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성교회에 대해 극단적인 배타성을 띠어 많은 마찰이 예상된다.

빈야드운동

1. 빈야드 운동이란?

최근에 `제 3 의 물결' `빈야드 운동' 혹은 `토론토 축복'이라 불리워지는 운동 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빈야드'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Anaheim, California)에 있는 `빈야드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이끄는 존 Wimber(John Wimber)를 비롯해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단체가 `빈야드 교회 연합(Association of Vineyard Churches)'으로서 이제는 일종의 교단처럼 되었기 때문이고, `토론토 축복'이라 함은 존 아노트(John Arnott)가 개척한 `토론토 공항 교회(Toronto Airport Vineyard)'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언론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빈야드 운동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특히 강조하는 권능주의와 성령체험의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감정주의의 두 관점이 강조되는데, 능력전도를 주장하는 존 Wimber의 경우는 권능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감정적 경험을 중시하는 존 아노트는 감정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현재는 존 Wimber(John Wimber)가 이끄는 `빈야드 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중심한 빈야드 운동(Vineyard Movement)과 존 아노트(John Arnott)가 이끄는 `토론토 공항 교회(Toronto Airport Vineyard)'를 중심한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은 분리되었다.

2. 빈야드 운동의 문제점들.

(가)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양하다. 성령의 은사는 기적적인 것도 있으나, 기적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다. 또한 그런 은사들은 각 사람이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사명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능력, 그리고 신비 현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특정한 은사들이나, 격렬한 감정의 분출 현상이나 이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령의 역사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즉 말씀, 사랑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사회에 대한 책임적 행위에 관련된 성령의 역사)이 간과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웬일인지 최근에 Wimber는 이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그가 미친 영향은 결국 초자연적 능력을 매우 강조하여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 소리 등의 현상은 비성경적인 현상들이다.

빈야드 운동이 사람들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떨림, 쓰러짐, 거룩한 웃음 등의 현상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이 운동의 특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집회의 분위기는 그런 현상들을 암시적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승 소리는 토론토 교회의 현상으로서 존 아노트가 그런 현상들과 특히 침승 소리를 정당화하는 성경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묘사한 계시록 5:5 이라든지 `하나님이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는 아모스 3:8 등을 인용하여 정당화하고 있는데(The Father's Blessing pp.172~173), 이는 억지스런 해석으로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은유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적인 침승 소리나 괴성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쓰러지는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들은 쓰러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스겔 1:28 과 다니엘 8:17 을 근거로 에스겔과 다니엘의 쓰러짐을 말한다.

그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스스로 앞으로 부복한 것이지 빈야드의 경우와 같이 은혜의 체험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전혀 성경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현상에 속한다.

(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소용되는 성령의 선물이며 능력이다. 은사들은 구체적인 유익, 특히 타자를 위한 유익을 가져온다(고린도전서 14 장, 에베소서 4:11).

빈야드 지도자들은 간혹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는 관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다. 그들에 의하면 문제는 성령의 은혜로 삶이 갱신되고, 새롭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사역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The Father's Blessing, p.166; 능력치유 p.358).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언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기도(그들은 이런 것을 soaking prayer 라고 부른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The Father's Blessing p.96).

(라) 예배를 무질서하게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찬양과 예배의 갱신은 그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형식에 얽매어 역동성을 상실한 예배를 자유롭고 무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갱신하고자 한다. 무형식적인 예배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 항상 똑 같고 형식적인 예배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식 속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빈야드가 아무리 무형식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 자리 잡게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긴 찬송 시간, 설교, 각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 등은 이미 하나의 형식이다. 사실상, 웬바 자신도 어느 정도 질서와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 수용하는 이들의 신학적 목회적 비성숙성이 더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빈야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교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 기존 신앙생활의 모습을 고수하려는 이들과의 사이에 마찰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과 역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되,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에 따라 건전하고 덕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1. 트레스 디아스(Tres Dias)의 유래

트레스 디아스는 처음에는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Tres Dias Weekend 에 개신교도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회는 이 행사를 신교도들에게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행사가 되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 운동은 가톨릭 교회 신자만이 아닌 개신교 신자들도 참여한 초교파적인 트레스 디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 및 개신교도 신자를 포함한 초교파적인 Tres Dias Weekend 가 1972 년 11 월 2-5 일 뉴욕 뉴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1980 년 7 월 11 일에는 미국 전역의 Tres Dias 공동체가 전체 Tres Dias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합하였으며 계속해서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Tres Dias 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트레스 디아스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지부는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북 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나라에는 트레스 디아스의 활동이 상당한 상태에 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트레스 디아스의 회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개신교도들에게서도 말입니다.

2. 트레스 디아스(Tres Dias)가 개신교도들에게 미친 영향

첫째, 초교파적이고 범교회적인 연합 운동입니다. 트레스 디아스의 시작은 스페인 내란과 세계 2 차 대전의 전쟁을 겪는 격동 시기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정신적 궁핍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서 어떻게 하면 여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찾는 것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뿐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에 대한 의식 변화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푸르지오 운동'이며, 이것이 지금의 트레스 디아스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교파적이고 범교회적인 연합 운동의 성격을 띠어갔습니다.

둘째, 트레스 디아스가 초교파적이고 범교단적인 성격을 띠고서 개신교도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것이 지닌 위험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에 불고 있는 트레스 디아스 운동 바람은 각 지역에서 종교인 여부를 떠나서 무슨 사회적이고 문화적 행사를 하는 것으로 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교파적이고 범교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트레스 디아스는 분명히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스 디아스는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레스 디아스를 한국에 처음 전파한 사람이 이단자로 알려진 귀신파 계열의 이명범이라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 트레스 디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단 사상이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명범은 귀신파(또는 베뢰아파)로 알려진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만영 장로와 함께 김기동 목사와 헤어져서

독립하여 레마션교회를 만들어 끌고 나가면서 이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립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펼쳐 나갔던 트레스 디아스는 이명범에 의해서 도입되면서 혼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베뢰아식 훈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한국에서는 '트레스 디아스' 라고 하면 레마션교회의 이명범과 함께 생각이 될 정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명범과 함께 김기동으로부터 독립한 한만영 장로는 가 있었는데 그는 동서가 되는 로스엔젤레스의 은혜교회에 시무하는 K 목사에게 영향을 주어 미국 한인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과 발전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체도 여러 곳으로 늘었는데 트레스 디아스를 자신의 독특한 교리와 합쳐 사용하는 이단적인 단체도 있는가 하면, 트레스 디아스를 개신교의 프로그램화하여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신교화된 트레스 디아스의 대표적인 곳 세 군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gape Tres Dias 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회인 승복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통합측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교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역이 있습니다.

(2)Golden Tres Dias 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감리교회인 금호제일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어 목사들간에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3)여의도 Tres Dias 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교회 내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갖는 이들 트레스 디아스는 비록 개신교화하였을지라도 이 운동이 카톨릭 교회에서 출발점을 가졌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적인 면을 다분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 심리적인 방법에 치중하는 면이 있으며, 용어 사용에서도 카톨릭 교회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레스 디아스는 교회론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는 이것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을 교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 트레스 디아스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무형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레스 디아스가 교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신자들의 운동으로 펼쳐 나가는 것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활동 중인 이단 세력들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박태선)

한때 100 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던 전도관은 박태선 사후 소수의 무리로 전락. 박태선 자신을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불의 사자’, ‘새 하나님’이라 부르더니 “천부교”라고 개칭하였다. 신앙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불미스런 사회범죄 행위를 일으킴. 한국 신흥이단의 뿌리가 된다. 전도관에 뿌리를 둔 이단이 18 개가 넘는다.

새빛(실로)등대 중앙교회(김풍일, 1946~)

과천 장막성전출신. 김풍일 자신을 ‘가지 사명자’, ‘보혜사’라 자처. 실로출판사, 실로신학연구원 등 운영.

여호와새일교(이유성, 1915~1972)

여호와께서 새일을 행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단단체. 멸공을 내세움. 신비주의에 집착한 이단집단으로 통일교의 피가름을 본 판 생수가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이유성의 말세비밀 등 허망한 주장 일관. 교주의 사후 급격히 쇠퇴했으나 강경파(구원대), 대한예수교성결선교회(이완만), 세계순금등대, 새일수도원말세복음부흥단, 스룹바벨파 등의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

단월드(단학선원)

창시자 이승헌(1950~)이 1985 년 설립, 단학수련 기(氣)수련, 단요가, 뇌호흡(뇌계발) 등을 가르치며 교육 및 건강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전국 학교 및 공공장소에 단군 조형물을 세워 물의, 단월드의 천부경, 홍익인간 이화세계, 선도 풍류 등의 신통한 기운을 통하여 건강과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수련은 유사종교성이 있다. 저서(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등), ‘다이어트, 척추측만교정, 성인병예방, 대인관계개선’등의 홍보문구로 인해 종교성이 감추어짐.

에덴문화원(만교통화교) - (김민석, 1934~)

민석성서라는 문서 발간. 문선명의 원리강론 표절. 자신을 민석대왕이라 하며, 자신을 믿으면 100 억년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해괴한 주장들로 일관.

한국기독교에덴성회(이영수, 1942)

박태선의 전도관(신앙촌)에서 이탈하여 분파한 이단. 박태선이 첫 감람나무라면, 이영수 자신을 둘째 감람나무라고 주장. 보혜사 성령을 인간에게 연결시켜 주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주장. 경기도 가평에 에덴타운을 형성하고 그 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 외 이단들

동방교(교조-노광공/교주-노영구)

천도관(천옥찬)

새마을전도회(천국복음)-(구인회)

세계일가공회(양도천)

신권도학연구소(신동수)

일원산기도원(김성복)

주현교회(삭발교)-(이교부)

이단 관련 사업체 및 기관

□통일교

기관-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평화청년연합, 혁선교 회(CMR)
언론- 세계일보, 워싱턴타임즈, UPI 통신
교육- 선문대학교, 선교예교
산업- (주)한국티타늄, (주)평화자동차, (주)통일중공업, (주)일화, (주)와콤,
(주)일성콘도, (주)우리몰

□여호와의 증인

주요간행물: 파수대(WATCH TOWER), 깨어라(Awake), 신세계번역성경

□몰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의교회)

월간 성도의 벗
뉴스킨코리아(무점포 판매회사)- 다단계방법

□대순진리회

대진고교 외 6 개 고교, 대진대학(포천), 분당제생병원, 동두천제생병원

□안식교(제 7 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시조사, 예언의 소리 통신학교, 서울 위생병원, 삼육학원(삼육대학, 삼육중고교), 삼육영어학원(SDA),
삼육식품(삼육우유, 삼육두유), 월간 시조, 교회지남 등

□천부교(전도관)

신양초 이불, 간장, 양말 스타킹 등

□엘리아 복음선교원

도서출판 석국(출판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

멜기세덱 출판사

□JMS

월간 섭리세계, 도서출판 명(출판사)

□영생교

근화실업, 태인(출판사), 승리회보(간행물)

□지방교회, 형제교회, 회복교회

한국복음서원(출판사), 새생명의사람들(출판사)

□구원과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 유병언파

(주) 세모(유람선, 스쿠알렌, 조선소, 건설), 과천 우정병원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파, 기쁜소식사(출판사)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파, 진리의말씀사(출판사)

□안양 신천지 교회

무료성경신학원, 시온신학원, 단기신학원, 바울신학원, 만나성경통신학원-정통교단의 이름을 따서 신학원 이름을 수시로 바꿈.

□신나라(아가동산)

신나라레코드

대학가 이단관련 기관

□안상홍증인회

대학생종교개혁선교회(CMR) 대학생자원봉사연합(FUV)

-안상홍증인회, 국제자원봉사단, 재난복구봉사단 등 사회봉사 자원봉사를 통해 침투

□JMS

신앙과예술, BNB, CGM, 고들 빛, BOB, 아기자기, 보라매, 예수사랑 등의 이름으로 활동. 자꾸 그 이름을 변경

□구원과

IYF, GNN, CAA, 믿음의 사람들(LBF)